

看護學 教授들의 看護專門職에 대한 態度 調査研究 *

이 남 희 **

I. 서 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연구결과 A.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B. 조사 대상자의 7가지 간호	차례 전문직에 대한 태도 분석 IV. 고 칠 V. 결 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	--

I. 서 론

오늘날 과학의 발전은 우리 주위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한 현대의 기계문명 사회는 전문화된 형태의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목표는 명시된 것이 없었고, “훌륭한 간호원을 육성한다”는 박연하고도 관념적 형태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간호학의 확고한 이념과 가치관을 세워서 간호만이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기능을 개발하고 다양성 있는 인간 교육에 중점을 두어 새 시대에서 요구하는 간호원을 교육 하여야 하겠다.

환자들이 지닌 공통적인 간호 문제를 보면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및 교육적 요구의 층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현대 간호의 목표는 전인적 간호에 있으며 이는 질병이나 치료본위의 간호를 초월하여 보다 더 넓은 차

원에서 환자의 전 인격적 요구에 기초를 둔 인간중심의 간호이며 환자가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한 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만족스런 역할을 다 할때까지 장기적 계획을 세워 환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및 교육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데 있다.”

Rogers, Fiedler 및 Heine의 연구에 의하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직업을 가진이가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념과 태도, 지각의 방향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전문직을 맡은 사람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자기가 맡은 책임이나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교사직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건 즉 사회적 지위, 봉급 그밖의 많은 요건들이 관여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으로 스스로 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도: 하영수교수
**서울간호전문학교

- 1) 하영수의, “한국 간호학의 이념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대한간호」(1976), 제15권, 제2호, P. 37.
- 2) Virginia Henderson(1964), “The Nature of Nursing” A. J. N., Vol. 64, No. 8, P. 62.
- 3) Marlenee, Glover, Mayers(1972), *Systematic Approach to the Nursing Care Plan*(New York : Appleton-Century Crofts), PP. 26~166.
- 4) 최정훈(1969), “개념형성 단계와 지각향성으로 측정한 대학교수의 효율성 연구”, 「인문과학」 제22집, P. 60.

각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충실향한 생활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호학생의 연령층을 보면 청년 후기의 젊은 여성들이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신체적인 변화가 많고 정서는 격정성과 감격성을 지니는게 특색이다.⁵⁾ 이러한 학생을 훌륭한 간호 전문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교수의 역할은 매우 크며 우선 교수 자신의 생활철학을 확고히 설정해야 될 것이다. 즉 “좋은 교사를 좋은 교육”의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교사의 역할이 교육에 미치는 비중이 크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간호학 교수들의 간호 전문직에 대한 태도를 분석 규명하여 간호직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형성과 나아가 간호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학 교수의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응, (2) 간호원의 근무태도, (3)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간호직의 전망, (5) 간호교육의 문제, (6) 교직생활에 대한 내적, (7) 외적만족 여부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A.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Burke(1976), Munson(1974)의 보고와 한국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일 조사연구(홍신영 외 1969)에 준거하여 간호학자, 사회학자와 상의하여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7개항목), 간호원의 근무태도(5개항목),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8개항목), 간호직의 전망(7개항목), 간호교육의 문제(11개항목), 교직생활의 내적만족(8개 항목) 및 외적만족(5개항목)의 여부를 중심으로 5단계 평점법을 적용하여 각 항목마다 “절대긍정,” “약간긍정,”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약간부정,” “절대부정”으로 구분하였고 배점은 긍정도 순으로 절대긍정 1.0, 약간긍정 2.0,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3.0, 약간부정 4.0, 절대부정 5.0, 무응답을 0점으로 하였다.

5) 최정훈, 「지자 심리학」(서울: 을유문화사), (1971) P. 240.

6) 한정석, “간호 대학생의 학년별 태도 변화,” 「간호학회지」, (1973) 제 3권, 제 2호, P. 122.

7) 김윤희, “지자 향성검사에 의한 전문적 간호교수들의 직업 효율성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73) 제 3권, 제 3호, P. 31.

B.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방법

1. 연구대상

조사 대상자는 전국 간호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간호학 교수 전원(전임강사이상, 314명)을 대상으로 준비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1977년 9월 10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5명의 응답(65.0%)을 얻었다(표 1).

2.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응답자의 자료는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하여 통제적 분석을 하였다.

여러개의 대표값을 비교하는데는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2개의 대표값을 비교하는데는 Duncan test를 이용 분석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검증은 χ^2 -test를 하였다.

표 1. 전국 간호교육기관의 질문지 배부 및 회수율

학 교	배부수	응답수	백분율 (%)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104	58	55.8
간호전문학교	190	136	71.6
간호학교	20	11	55.0
계	314	205	65.0

III. 연구결과

A.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 교수의 일반적 특성을 내용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최소 24세부터 최고 48세까지로서 이중 25~29세가 3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34세(30.7%), 35~39세(22.9%), 40~44세(6.4%), 45~50세(2.0%) 및 25세 이하(1.0%)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결혼형태별 분포는 기혼자가(81.0%), 미혼자(18.0%)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조사 대상자의 종교별 분포는 기독교가 4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종교(24.9%), 천주교(20.0%), 불교(8.8%)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최종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대학 졸업(22.9%), 간호학교 졸

업(21.0%), 보건 대학원 졸업(14.6%), 일반대학 졸업(8.8%), 교육 대학원 졸업(5.9%)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직위별 분포에 의하면 전임강사(63.4%)가 과반수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교수(28.8%), 부교수(5.9%), 교수(2.0%)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근무기관별 분포는 간호전문학교 재직 교수가 66.3%로 가장 많았고 간호대학 재직(28.3%), 간호학교 재직(5.4%)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근무기관별로 보면 지역이 60.5%로(간호학과: 5개교, 간호전문학교: 31개교, 간호학교: 1개교) 서울(39.5%)보다(간호대학: 2개교, 간호학과: 7개교, 간호전문학교: 6개교) 높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사수 및 구성비율

특 성	수	백분율 (%)
<u>연령</u>		
24 세 이 하	2	1.0
25 ~ 29	76	37.0
30 ~ 34	63	30.7
35 ~ 39	47	22.9
40 ~ 44	13	6.4
45 ~ 49	4	2.0
계	205	100.0
<u>결혼형태</u>		
기 혼	166	81.0
미 혼	37	18.0
무 응답	2	1.0
계	205	100.0
<u>종교</u>		
기독교	95	46.8
불교	18	8.8
천주교	41	20.0
무종교	51	24.9
계	205	100.0
<u>최종 졸업학교</u>		
간호학교	43	21.0
일반대학	18	8.8
간호대학	47	22.9
대학원	54	26.3
교육대학원	12	5.9
보건대학원	30	14.6

특 성	수	백분율 (%)
무 응답	1	0.5
계	205	100.0
<u>직위</u>		
전임강사	130	63.4
조교수	59	28.8
부교수	12	5.9
교수	4	2.0
계	205	100.0
<u>근무기관</u>		
간호대학	58	28.3
간호전문학교	136	66.3
간호학교	11	5.4
계	205	100.0
<u>지역별</u>		
서울	81	39.5
지방	124	60.5
계	205	100.0
<u>교육경력</u>		
4년 이하	60	29.3
5~9년	96	46.8
10~14년	33	16.1
15~19년	11	5.3
20~24년	3	1.5
무응답	2	1.0
계	205	100.0
<u>임상경력</u>		
전혀 없다	45	22.0
1~4년	122	59.5
5~9년	29	14.1
10~14년	5	2.4
15~19년	2	1.0
무응답	2	1.0
계	205	100.0

조사 대상자의 교육경력별 분포는 1년이내에서 20년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이중 5~9년 경력을 가진 교수가 46.8%로 가장 많았으며 그외 4년이하(29.3%), 10~14년(16.1%), 15~19년(5.3%), 20~24년(1.5%)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임상경력별 분포는 무에서 19년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이중 1~4년이 59.5%로 가장

많았고 그외 무(22.0%), 5~9년(14.1%), 10~14년(2.4%), 15~19년(1.0%)의 순이었다.

B. 조사 대상자의 7가지 간호 전문직에 대한 태도 분석

조사 대상자의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응 간호원의 근무태도,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직의 전망, 간호교육의 문제, 교직 생활의 내적, 외적인 만족등 간호 전문직에 대한 반응을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한다」(평균척도=2.424)는 반응을 보였다.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항목은 「원만한 보수문제」(평균척도=1.333), 「병원 환경 개선의 필요」(평균척도=1.465)등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과 「담당과목과 전공과목의 불일치로 자신감이 부족하다」(평균척도=1.518), 「이론 강화와 임상 실습지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평균척도=1.668)등 간호교육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항목은 「수입이 많은 직업」(평균척도=3.849), 「사회에서 우대받는 직

업」(평균척도=3.629)등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것이었고 「가정이 안정되어 있다」(평균척도=3.750)는 교직 생활의 외적인 만족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중립적인 반응을 보인 항목은 「간호원은 환자에게 불친절하다」(평균척도=2.970)로 간호원의 근무태도에 관한 것이었고 「앞으로는 취업이 현재보다 더 잘 될 것이다」(평균척도=3.134)로 간호직의 전망에 관한 것이었고 「충분한 임상 실습지가 있다」(평균척도=3.054)는 간호교육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표 3).

1. 간호학 교수의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응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응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시험에 쉬워 자격 얻기가 쉬운 직업이다」(평균척도=2.603)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대로 「수입이 많은 직업이다」(평균척도=3.849), 「사회에서 우대받는 직업이다」(평균척도=3.629)의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의사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는 일이 많고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없는 직업이다」(평균척도=3.161)에 대해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3).

표 3. 간호학 교수의 간호 전문직에 대한 태도의 조사 항목별 평균 척도의 비교

내 용	응답수	평균척도	표준오차	척도의범위
<u>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응</u>				0.0~35.0
○수입이 많은 직업	199	3.847	0.070	
○사회에서 우대받는 직업	205	3.629	0.066	
○의사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는 일이 많고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없는 직업	205	3.161	0.085	
○국가시험에 쉬워 자격 얻기가 쉬운 직업	199	2.603	0.074	
○전문성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	202	2.881	0.080	
○간호원 단체나 조직은 다른 전문직보다 약하다	202	2.822	0.084	
○간호보조원 제도 등의 도입으로 간호원 전체의 질이 낮아졌다	202	2.926	0.088	
<u>간호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반응</u>				0.0~25.0
○간호원은 반복적인 일과에서 환자간호에 무관심하다	200	2.670	0.071	
○간호원은 환자에게 불친절하다	198	2.970	0.063	
○간호원은 계속적으로 긴장된 환경에서 근무한다	202	1.817	0.062	
○병원에 인력부족으로 간호업무는 과중하다	202	1.723	0.053	
○간호원은 그들의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연구한다	202	2.881	0.080	
<u>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응</u>				0.0~40.0
○원만한 보수 문제	202	1.333	0.053	
○병원 환경 개선 필요	202	1.465	0.042	
○간호원의 근무시간 개선 필요	198	2.000	0.073	
○능숙한 간호 기술 필요	201	1.693	0.043	

내 용	응답수	평균척도	표준오차	척도의범위
○희생과 봉사만을 강조하는 재래식 간호교육이 넘어서의 탈피	202	1.634	0.059	
○간호교육을 위한 경제적 보조 필요	200	1.690	0.051	
○사회인들의 간호사업에 대한 계몽 필요	197	1.574	0.051	
○간호원은 간호직에 공지를 갖고 있다	202	2.733	0.074	
<u>간호직의 전망에 대한 반응</u>				0.0~35.0
○간호원 자유 판단의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200	2.060	0.055	
○점차적으로 문제해결 중심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202	1.906	0.057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간호에 요구되는 교육수준이나 자격이 높아질 것이다.	202	2.129	0.069	
○경제적 대우는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199	2.593	0.056	
○취업이 잘될 것이다	202	3.134	0.065	
○해외진출이 쉬워질 것이다	202	3.178	0.067	
○사회인식이 더 좋아질 것이다.	202	2.317	0.057	
<u>간호 교육 문제에 대한 반응</u>				0.0~55.0
○이론 강화와 임상 실습지에서 오는 길등이 있다	202	1.668	0.049	
○담당과목과 전공과목의 불일치로 자신감이 부족하다	199	1.518	0.050	
○간호학의 이론적 체계가 서 있지 않다	204	2.657	0.073	
○교육 년한이 일정치 않아 간호의 질에 차이가 있다	201	2.313	0.078	
○학생의 개인 차가 심해 교육하기 힘들다	204	2.686	0.063	
○집무가 많아 강의준비, 연구시간이 부족하다	205	2.893	0.084	
○간호 교육에 문제가 있다	201	1.756	0.0543	
○충분한 임상 실습지가 있다	203	3.054	0.091	
○연구시설이 충분하다	202	3.421	0.075	
○참고 자료가 충분하다	201	3.294	0.072	
○나는 간호의 이념 또는 철학을 정립하고 있다	204	2.333	0.057	
<u>교직생활의 내적 만족 여부</u>				0.0~40.0
○교육하는 즐거움이 있다	205	1.751	0.044	
○가르키는 학과에 자신이 있다	202	2.153	0.053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5	1.976	0.057	
○교수로써 자질이 충분하다	203	2.778	0.054	
○자율성이 인정된다	205	2.029	0.063	
○직업에 안전성이 있다	205	1.986	0.056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205	2.210	0.061	
○가족중 간호원이 되길 원한다면 권하겠다	204	1.897	0.056	
<u>교직 생활의 외적 만족여부</u>				0.0~25.0
○업무조건이 좋다	201	2.318	0.073	
○보수가 좋다	205	2.785	0.066	
○직위에 만족한다	203	2.562	0.069	
○가정이 안정되어 있다	204	3.750	0.076	
○교수 임명 승진에 관한 규정이 있다	198	2.460	0.093	

한편 조사 대상자의 연령, 직위, 재직학교, 교육경력 및 임상경력별로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검토해 보면 재직학교에서만 차이 ($F=4.200$, $P=0.016$)가 있었고 그의 연령, 직위, 교육경력 및 임상경력별 반응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표 4).

즉 간호학교에 재직하는 교수는 (산술평균=17.2727)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간호대학(산술평균=20.9655), 간호전문학교(산술평균=20.1324)에 재직하는 교수는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중립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P<0.05$)(표 5).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응을 항목별로 본 결과 「국가 시험에 쉬워 자격얻기가 쉽다」에 대해서는 교육경력($P=0.0125$)과 연령이 ($P=0.026$) 적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표 6).

2. 간호학 교수의 간호원 근무태도에 대한 반응

간호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반응을 전체적으로 보면 「병원에 인력부족으로 간호업무는 과중하다」(평균척도=1.723), 「간호원은 계속적으로 긴장된 환경에서 근무한다」(평균척도=1.817)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간호원은 환자에게 불친절하다」(평균척도=2.970)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3).

한편 조사 대상자의 연령, 직위, 재직학교, 교육경력 및 임상경력별로 간호원의 근무태도에 대해 검토해 보면 직위 ($F=4.382$, $P=0.005$)와 임상경력 ($F=7.640$, $P=0.001$)별로 차이가 있었다(표 4).

즉 간호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직위별 반응에 있어서는 부교수가 (산술평균=9.1667), 교수 (산술평균=12.7500)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P < 0.05$) 또한 임상경력별 반응에 있어서는 10~19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교수가 그의 교수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P<0.05$)(표 5).

간호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반응을 항목별로 본 결과 「간호원은 계속적으로 긴장된 환경에서 근무한다」에 대해서 서울에 재직하는 교수가 지방에 재직하는 교수보다 더 긍정적이었고 ($P=0.014$) 연령이 적은 교수 일수록, 직위가 낮은 교수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P=0.0043$, $P=0.0136$)(표 7).

3. 간호학 교수의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응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만한 보수문제이다」(평균척도=1.333), 「병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평균척도=1.465), 「사회인들의 간호 사업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평균척도=1.574)등의 항목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한편 「간호원은 간호직에 대한 궁지를 갖고 있다」(평균척도=2.733)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표 3).

한편 조사 대상자의 연령, 직위, 재직학교, 교육경력 및 임상경력별로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해 보면 임상경력에서 차이 ($F=4.096$, $P=0.008$)가 있었다(표 4).

표 4. 간호학 교수의 연령, 직위, 재직학교, 교육경력 및 임상경력별
간호전문직에 대한 반응 비교

내 용	연 령		직 위		재직학교		교육경력		임상경력	
	F	P	F	P	F	P	F	P	F	P
	(2.202)		(1.203)		(2.202)		(2.202)		(3.201)	
1. 간호직 교수의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응	1.645	0.916	2.451	0.065	4.200	0.016	0.451	0.637	2.199	0.089
2. 간호직 교수의 간호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반응	0.365	0.697	4.382	0.005	1.869	0.157	0.650	0.523	7.640	0.001
3. 간호직 교수의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응	1.305	0.273	0.426	0.735	1.532	0.219	0.067	0.935	4.096	0.008
4. 간호직 교수의 간호직의 전망에 대한 반응	2.254	0.108	1.996	0.116	3.083	0.048	1.560	0.213	10.6660	0.001
5. 간호직 교수의 간호교육의 문제에 대한 반응	0.246	0.783	2.540	0.058	4.948	0.008	0.288	0.750	2.974	0.033
6. 교직생활의 내적인 만족 여부	0.606	0.547	1.414	0.240	4.282	0.015	0.986	0.375	2.037	0.110
7. 교직생활의 외적인 만족 여부	0.260	0.771	3.962	0.009	5.648	0.004	0.001	0.999	2.893	0.036

표 5. 간호학 교수의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 간호원의 근무태도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평균척도의 비교

조사 내용	조사 수	산술평균	F - test F - 값	probability
1.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응				
재직 학교			3.131	0.016
간호대학	58	20.9655		
간호전문학교	136	20.1324		
간호학교	11	17.2727		
2. 간호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반응				
임상경력			7.640	0.001
무	45	12.0889		
1 ~ 4년	122	11.9426		
5 ~ 9년	29	12.0000		
10 ~ 19년	9	7.7778		
직위			4.382	0.005
전임강사	130	11.9924		
조교수	59	11.8475		
부교수	12	9.1667		
교수	4	12.7500		
3.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응				
임상경력			4.096	0.008
무	45	18.5556		
1 ~ 4년	122	18.4508		
5 ~ 9년	29	17.8276		
10 ~ 19년	9	14.3333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79, 2.94, 3.03 at P=0.05

1. 간호학교와 간호전문학교 P<0.05, 간호학교와 간호대학 P<0.05
2. 임상경력 10~19년과 1~4년, 10~19년과 5~9년, 10~19년과 무 P<0.05, 부교수와 교수 P<0.05
3. 임상경력 10~19년과 5~9년, 10~19년과 1~4년, 10~19년과 무 P<0.05

즉 임상경력이 많은 교수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10~19년 : 산술평균=14.333, 5~9년 : 산술평균=17.8276, 1~4년 : 산술평균=18.4508, 무 : 산술평균=18.5556) (표 5)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응은 항목별로 본 결과 「사회인들의 간호사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P=0.0386), 「간호 교육을 위한 경제 보조가 필요하다」(P=0.0464) 등에 대해서는 젊은 교수의 교수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표 8).

4. 간호학 교수의 간호직의 전망에 대한 반응

간호직의 전망에 대한 반응을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문제해결 중심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다」(평균척도=1.906)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반대로 「해외 진출은 점차적으로 쉬워질 것이다」(평균척도=3.178)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3).

한편 조사 대상자의 연령, 직위, 재직학교, 교육경력 및 임상경력별로 간호직의 전망에 대해 검토해 보면 재직학교 (F=3.083, P=0.048), 임상경력별 차이 (F=10.666, P=0.001)가 있었고 그 외 연령, 직위, 교육경력별 반응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표 4) 즉 재직학교에서는 학교별 차이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임상경력별로는 10~19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교수 (산술평균=10.444) 절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그 외 교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P<0.05) (표 9).

표 6. 간호학 교수의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응

내 용	공 정 수 백분율 (%)	중 립 수 백분율 (%)	부 정 수 백분율 (%)	계 수 백분율 (%)
<u>국가시험에 쉬워 자격얻기가 쉽다</u>				
<u>연령</u>				
29세 이하	46 61.3	16 21.3	13 17.4	75 37.5
30~39세	51 47.6	34 31.8	22 20.6	107 53.8
40~49세	3 17.6	8 47.1	6 35.2	17 8.5
계	100 50.3	58 29.1	41 20.6	199 100.0
$X^2 = 23.67241 \quad d.f. = 4 \quad P = 0.026 \quad \text{No response} = 6$				
<u>교육경력</u>				
4년 이하	40 66.7	11 18.3	9 15.0	60 30.2
5~9년	44 47.8	33 35.1	17 18.1	94 47.2
10~15년	16 35.5	14 31.1	15 33.3	45 22.6
계	100 50.3	58 29.1	41 20.6	199 100.0
$X^2 = 19.47579 \quad d.f. = 4 \quad P = 0.0125 \quad \text{No response} = 6$				

표 7. 간호학 교수의 간호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반응 비교

내 용	공 정 수 백분율 (%)	중 립 수 백분율 (%)	부 정 수 백분율 (%)	계 수 백분율 (%)
<u>간호원은 계속적으로 긴장된 환경에서 근무한다</u>				
<u>지역</u>				
서 울	72 90.0	3 3.7	5 6.2	80 39.6
지 방	95 77.9	22 18.0	5 4.1	122 60.4
계	167 82.7	25 12.4	10 5.0	202 100.0
$X^2 = 12.96765 \quad d.f. = 2 \quad P = 0.0114 \quad \text{No responses} = 3$				
<u>연령</u>				
29 세 이하	63 89.0	11 14.7	1 1.3	75 37.1
30 ~ 39세	92 83.7	11 10.0	7 6.4	110 54.5
40 ~ 49세	12 70.6	3 17.6	2 11.8	17 8.4
계	167 82.7	25 12.4	10 5.0	202 100.0
$X^2 = 22.36354 \quad d.f. = 4 \quad P = 0.0043 \quad \text{No response} = 3$				
<u>직위</u>				
전 임 강 사	108 83.1	19 14.6	3 2.3	130 64.4
조 교 수	50 84.7	3 5.1	6 10.2	59 29.2
부 교 수	7 77.7	1 11.1	1 11.1	9 4.5
교 수	2 50.0	2 50.0	0 0	4 2.0
계	167 82.7	25 12.4	10 5.0	202 100.0
$X^2 = 25.27616 \quad d.f. = 6 \quad P = 0.0136 \quad \text{No response} = 3$				

표 8. 간호학 교수의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응

내 용	공 정	총 팀	부 정	계
	수 백분율 (%)	수 백분율 (%)	수 백분율 (%)	수 백분율 (%)
<u>사회인들의 간호사업에 대한 계몽 필요</u>				
<u>연령</u>				
29 세 이하	66 90.5	7 9.6	0 0	73 37.1
30~39세	94 87.6	13 12.0	1 0.9	108 54.8
40~49세	14 87.1	1 6.4	1 6.4	16 8.1
계	174 88.3	21 10.7	2 1.0	197 100.0
$X^2 = 13.29462 \quad d.f. = 4 \quad P = 0.0386 \quad \text{No response} = 8$				
<u>간호 교육을 위한 경제적 보조 필요</u>				
<u>연령</u>				
29세 이하	73 100.0	0 0	0 0	73 36.5
20~39세	96 84.6	13 11.8	4 3.6	110 55.0
40~49세	14 82.4	3 17.6	0 0	17 8.5
계	180 100.0	16 8.0	4 2.0	200 100.0
$X^2 = 15.72792 \quad d.f. = 4 \quad P = 0.0464 \quad \text{No response} = 5$				

표 9. 간호학 교수의 간호직의 전망, 간호 교육 문제에 대한 평균 척도

조 사 내 용	조 사 수	산술 평균	F - test
			F 값 probability
<u>4. 간호직의 전망에 대한 반응</u>			
<u>재직 학교</u>			
간 호 대 학	58	17.0862	3.083 0.048
간 호 전문 학교	136	17.1985	
간 호 학 교	11	16.1818	
<u>임상경력</u>			
무	45	17.5556	10.666 0.001
1 ~ 4 년	122	17.0410	
5 ~ 9년	29	19.0345	
10 ~ 19 년	9	10.4444	
<u>5. 간호 교육의 문제에 대한 반응</u>			
<u>재직 학교</u>			
간 호 대 학	58	28.1207	4.948 0.008
간 호 전문 학교	136	29.7132	
간 호 학 교	11	26.9091	
<u>임상경력</u>			
무	45	30.2889	2.974 0.033
1 ~ 4 년	122	29.0410	
5 ~ 9 년	29	28.4483	
10 ~ 19 년	9	26.3333	

Duncan's Multiple rang test 2.79, 2.94, 3.03, at $P = 0.05$ 4. 임상경력 10~19년과 1~4년, 10~19년과 무, 10~19년과 5~9년 $P < 0.05$.5. 간호학교와 간호전문학교 $P < 0.05$ 임상경력 10~19년과 무, < 0.05

간호직의 전망에 대한 반응을 항목별로 본 결과 「간호원 자유판단의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젊은층의 교수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P=0.0326$) 5~9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수가 그의 교수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P=0.0037$). 한편 「점차적으로 문제해결 중심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젊은층의 교수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P=0.0326$) (표 10).

5. 간호학 교수의 간호교육 문제에 대한 반응

간호교육 문제에 대한 반응을 전체적으로 보면 「당파목과 전공파목의 불일치로 자신감이 부족하다」(평균척도=1.518), 「간호학의 이론강화와 임상 실습지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평균척도=1.668)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연구시설이 충분하다」(평균척도=3.421), 「참고자료가 충분하다」(평균척도=3.294)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충분한 임상 실습지가 있다」(평균척도=3.054)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반응을 나타냈다(표 3).

한편 조사 대상자의 연령, 직위, 재직학교, 교육경력 및 임상경력별로 간호학교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면 재직학교 ($F=4.948$, $P=0.008$), 임상경력별로 유의한 차이 ($F=2.974$, $P=0.033$)가 있었다. 즉 간호학교에 재직하는 교수 (산술평균=26.909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해 간호전문학교 교수 (산술 평균=29.7132)는 중립적이었다 ($P<0.05$). 임상경력별 반응에 있어서는 10~19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교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데 비해 임상 경험이 없는 교수가 중립적인 반응이었다 ($P<0.05$) (표 9).

간호교육의 문제에 대한 반응을 항목별로 본 결과 「충분한 임상실습지가 있다」에 대해 젊은층의 교수일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P=0.0066$), 간호전문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간호대학, 간호학교 교수에 비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P=0.0036$).

「연구시설이 충분하다」에 대한 항목에서는 지방에 재직하는 교수가 서울의 교수보다 부정적이었고 ($P=0.0125$) 재직학교별로는 간호전문학교의 교수가 가장

표 10. 간호학 교수의 간호직의 전망에 대한 반응 비교

내 용	긍 정		중 립		부 정		계	
	수	백분율 (%)	수	백분율 (%)	수	백분율 (%)		
간호원 자유판단의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연령								
29세 이하	65	87.8	3	4.1	6	8.1	74 37.0	
30 ~ 39세	84	77.6	19	17.4	6	5.5	109 54.5	
40 ~ 49세	11	64.7	6	35.3	0		17 8.5	
계	160	80.8	28	14.0	12	6.0	200 100.0	
$X^2 = 16.76635$				d. f = 4	P = 0.036	No response = 5		
교육경력								
4년 이하	46	76.7	5	8.3	9	15.0	60 30.0	
5 ~ 9년	82	86.3	10	10.5	3	3.2	95 47.5	
10 ~ 15년	32	71.1	13	28.9	0		45 22.5	
계	160	80.0	28	14.0	12	6.0	200 100.0	
$X^2 = 22.78238$				d. f = 4	P = 0.0037	No response = 5		
점차적으로 문제해결 중심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연령								
29세 이하	64	85.3	10	13.3	1	1.3	75 37.1	
30 ~ 39세	87	79.1	17	15.5	6	5.5	110 54.5	
40 ~ 49세	13	76.4	3	17.6	1	5.9	17 8.4	
계	164	81.2	30	14.9	8	4.0	202 100.0	
$X^2 = 17.12803$				d. f = 4	P = 0.0288	No response = 3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P=0.0106$).

「나는 간호의 이념 또는 철학을 정립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1~4년 (73.5%), 5~9년 (75.9%)의 임상경

험을 가진 교수가 그의 교수에 비해 (무 : 44.5%, 10~19년 : 33.3%)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P = 0.0010$) (표 11).

표 11. 간호학 교수의 간호 교육의 문제에 대한 반응 비교

내 용	긍 정 수	백분율 (%)	중 립 수	백분율 (%)	부 정 수	백분율 (%)	계 수	백분율 (%)
<u>충분한 임상 실습지가 있다</u>								
<u>연령</u>								
29세 이하	17	22.1	17	22.1	43	54.6	77	37.9
30~39세	51	46.8	21	19.3	37	34.0	109	53.7
40~49세	12	70.6	3	17.6	2	11.8	17	8.4
계	80	39.4	41	20.2	82	40.4	203	100.0
$\chi^2 = 24.42213 \quad d.f = 0.0066 \quad No response = 2$								
<u>재직 학교</u>								
간호대학	30	51.7	8	13.8	20	34.5	58	28.6
간호전문학교	46	34.3	21	23.1	57	42.5	134	66.0
간호학교	4	36.4	2	18.2	5	45.5	11	5.4
계	80	39.4	41	20.2	82	40.4	203	100.0
$\chi^2 = 26.53801 \quad d.f = 4 \quad P = 0.0031 \quad No response = 2$								
<u>연구시설이 충분하다</u>								
<u>지역</u>								
서울	25	31.3	24	30.0	31	38.7	80	39.6
지방	22	18.1	24	19.7	76	62.3	122	60.4
계	47	23.3	48	23.8	107	52.9	202	100.0
$\chi^2 = 12.76095 \quad d.f = 2 \quad P = 0.0125 \quad No response = 3$								
<u>재직 학교</u>								
간호대학	18	31.0	15	25.9	25	43.1	58	28.7
간호전문학교	26	19.2	29	21.5	80	59.2	135	66.8
간호학교	3	33.3	4	44.4	2	22.2	9	4.5
계	47	23.3	48	23.8	107	52.9	202	100.0
$\chi^2 = 19.92228 \quad d.f = 4 \quad P = 0.0106 \quad No response = 3$								
<u>나는 간호의 이념 또는 철학을 정립하고 있다</u>								
<u>임상경력</u>								
무	20	44.5	19	42.2	6	13.3	45	22.1
1~4년	89	73.5	27	22.3	5	4.1	121	59.3
5~9년	22	75.9	6	20.7	1	3.4	29	14.2
10~19년	3	33.3	4	44.4	2	22.2	9	4.4
계	134	65.7	56	27.5	14	6.9	204	100.0
$\chi^2 = 32.79821 \quad d.f = 6 \quad P = 0.0010 \quad No response = 1$								

6. 간호학 교수의 교직 생활의 내적만족에 대한 반응.

교직 생활의 내적만족에 대한 반응을 전체적으로 보

면 「교육하는 즐거움이 있다」(평균척도=1.751), 「가족중 간호원이 되길 원한다면 권하겠다」(평균척도=1.897)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나머

표 12. 간호학 교수의 교직생활에 내적, 외적만족에 대한 평균척도의 비교

조사 내용	조사 수	산술 평균	F - 값	F - test probability
<u>6. 교직생활에 내적 만족 여부</u>				
<u>재직 학교</u>			4.282	0.015
간호 대학	58	16.1897		
간호전문학교	136	18.0809		
간호 학교	11	16.7273		
<u>7. 교직생활에 외적 만족 여부</u>			5.638	
<u>재직 학교</u>			5.638	0.004
간호 대학	58	13.1034		
간호전문학교	136	14.0882		
간호 학교	11	12.0909		
<u>임상경력</u>			2.893	0.036
무	45	14.2444		
1 ~ 4년	122	13.8033		
5 ~ 9년	29	12.9310		
10 ~ 19년	9	12.1111		
<u>직위</u>			3.962	0.009
전임 강사	130	14.0462		
조교수	59	13.2542		
부교수	12	11.8333		
교수	4	14.7500		

Duncan's Multiple range teet 2.79, 2.94, 3.03 at P=0.05

7. 부교수와 교수 P<0.05

표 13. 교직생활에 내적 만족에 대한 반응 비교

내용	금 수	정 백분율 (%)	중 수	립 백분율 (%)	부 수	정 백분율 (%)	계 수	계 백분율 (%)
<u>교수로써 자질이 충분하다</u>								
<u>직위</u>								
전임 강사	32	24.6	79	60.8	19	14.6	130	64.0
조교수	25	42.2	26	44.1	8	13.6	59	29.1
부교수	5	50.0	4	40.0	1	10.0	10	4.9
교수	2	50.0	2	50.0	0	0	4	2.0
계	64	31.5	111	54.7	28	13.8	203	100.0
$X^2 = 22.49524 \quad d.f = 6 \quad P = 0.0323 \quad \text{No response} = 2$								
<u>임상경력</u>								
무	13	28.9	28	62.2	4	8.9	45	22.2
1 ~ 4년	36	29.5	65	53.3	21	17.2	122	60.1
5 ~ 9년	14	48.2	13	44.8	2	6.9	29	14.3
10 ~ 19년	1	14.3	5	71.4	1	14.3	7	3.4
계	64	31.5	111	54.7	28	13.8	203	100.0
$X^2 = 25.41307 \quad d.f = 6 \quad P = 0.0130 \quad \text{No response} = 2$								

지 항목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3)

한편 조사 대상자의 연령, 직위, 재직학교, 교육경력 및 임상경력별로 교수의 교직생활의 내적만족에 대해 검토해 보면 재직학교별로 차이 ($F=4.200$, $P=0.016$)가 있었으나 동질군에 속하므로 유의한 차가 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표 12).

교직생활에 내적만족에 대한 반응을 항목별로 본 결과 「자율성이 인정된다」에 대해서는 간호대학, 간호전문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간호학교 교수에 비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P=0.0069$), 10~19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교수가 그의 교수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P=0.0025$). 「교수로써 자질이 충분하다」에 대해서는 직위별 큰 차이없이 중립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P=0.0323$). 또한 5~9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교수가 그의 교수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P=0.0130$) (표 13).

7. 간호학 교수의 교직생활의 외적만족에 대한 반응

교직생활의 외적만족에 대한 반응을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조건이 좋다」(평균척도=2.318)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반대로 「가정이 안정되어 있

다」(평균척도=3.750)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었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적인 반응을 나타냈다(표 3).

한편 조사 대상자의 연령, 직위, 재직학교, 교육경력 및 임상경력별로 교직생활의 외적만족을 검토해 보면 직위 ($F=3.962$, $P=0.009$) 별로는 부교수가 긍정적이었고 그의 교수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고 ($P<0.05$) 재직학교 ($F=5.638$, $P=0.004$) 임상경력별 ($F=2.893$, $P=0.036$)로 평균치에 대한 차이는 있었으나 동질군에 속하므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표 12).

교직생활의 외적만족에 대한 반응을 항목별로 본 결과 업무 조건이 좋다」에 대해서는 서울에 재직하는 교수가 지방에 재직하는 교수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P=0.0107$) 「보수가 적다」에 대해서는 29세이하의 교수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P=0.0201$) 간호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대 (56.5%) 비해 간호전문학교 (52.2%) 간호대학 (43.1%)의 교수가 「보수가 적다」 반응이었고 ($P=0.0001$) 「교수 임명 승진에 관한 규정이 학교내에 설정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간호전문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67.2%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P=0.0001$) (표 14).

표 14. 교직생활에 외적만족에 대한 반응 비교

내 용	긍 정		중 립		부 정		계							
	수	백분율 (%)	수	백분율 (%)	수	백분율 (%)	수	백분율 (%)						
업무조건이 좋다														
<u>지역</u>														
서 울	59	73.8	15	18.8	6	7.4	80	39.8						
지 방	70	57.8	30	24.8	21	17.3	121	60.2						
계	129	64.2	45	22.4	27	13.5	201	100.0						
$X^2 = 13.11200$			$d.f = 2$		$P = 0.0107$		No response = 4							
보수가 적다														
<u>연령</u>														
29세 이하	33	42.4	38	48.7	6	9.0	78	38.0						
30 ~ 39세	29	26.3	51	46.4	30	27.2	110	53.7						
40 ~ 49세	5	29.4	11	64.7	1	5.9	17	8.3						
계	67	32.7	100	48.8	38	18.5	205	100.0						
$X^2 = 18.15753$			$d.f = 4$		$P = 0.0201$									
재직학교														
<u>간 호 대 학</u>														
간 호 대 학	12	20.7	25	43.1	21	36.2	58	28.3						
간호전문학교	49	36.0	71	52.2	16	11.7	136	66.3						
간 호 학 교	6	54.5	4	36.4	1	9.1	11	5.4						
계	67	32.7	100	48.8	38	18.5	205	100.0						
$X^2 = 38.30607$			$d.f = 4$		$P = 0.0001$									

자율성이 인정된다

재직 학교

간 호 대 학	46	79.3	8	13.8	4	6.9	58	28.3
간호전문학교	105	77.2	24	17.6	7	5.1	136	66.3
간 호 학 교	6	54.6	3	27.3	2	18.2	11	5.4
계	157	76.6	35	17.1	13	6.4	205	100.0

$$X^2 = 21.69796 \quad d.f = 4 \quad P = 0.0069$$

임상경력

무	32	71.1	9	20.0	4	0.9	45	22.0
1 ~ 4년	97	79.5	18	14.8	7	5.7	122	59.5
5 ~ 9년	24	78.7	5	17.2	0	0	29	14.1
10 ~ 19년	4	44.4	3	33.3	2	22.2	9	4.4
계	157	76.6	35	17.1	13	6.4	205	100.0

$$X^2 = 30.32896 \quad d.f = 6 \quad P = 0.0025$$

교수 임명 승진에 관한 규정이 학교내에 설정되어 있다

재직 학교

간 호 대 학	48	85.7	5	8.9	3	5.4	56	28.3
간호전문학교	63	47.4	31	23.3	39	29.3	133	67.2
간 호 학 교	6	66.6	2	22.2	1	11.1	9	4.5
계	117	59.1	38	19.2	43	21.7	198	100.0

$$X^2 = 34.58869 \quad d.f = 4 \quad P = 0.0001 \quad \text{No response} = 7$$

대한 그 개인의 반응에 지시적 혹은 역학적 영향을 미치는 경험에 의하여 체제화된 심적 신경적인 준비상태"라고 정의했다. 결국 태도라고 하면 과거에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 서서히 혹은 급격하게 내적인 세계로 통합되어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의 간호직에 대한 올바른 관념과 태도가 가장 중요시 된다.

그러면 과연 교수들의 간호직에 대한 바람직한 관념과 태도는 무엇인가?

1973년 국제 간호원 협의회(I. C. N.)⁸⁾ 총회의 주제 "Nurses & Nursing"의 내용에 의하면 간호직이란 훌륭하고 가치있는 전문직이고 그 당위성과 요구성이 강조되지만 간호원이 꾀 간호인을 위하여 간호를 실천하는 것으로 (do-Nursing) 연결시키지 않는 한 바람직한 간호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IV. 고 質

전국 간호 교육기관 52개교에 재직하는 간호학교 수 205명을 대상으로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응, 간호원의 근무태도,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직의 전망, 간호교육 문제, 교직생활의 내적 및 외적 만족여부에 대한 반응등 7가지 간호전문직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를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고영복(1977)⁹⁾은 태도에 대하여 사회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자아가 행동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곳이 태도라는 영역이라고 했으며 개인이 접촉하고 있는 세계의 어느 측면에 대한 감정, 지각, 인지, 동기화 등의 심리작용의 영속적인 태세라고 했다. 올포트는 "태도란 개인이 관계한 모든 대상이나 상황에

8) 고영복, 「현대사회심리학」(서울: 범문사), (1977) PP. 65~66.

9) 이영복(1976), "전문직과 윤리," 「이화창립90주년 학술 심포지움 보고서」 P. 18에 인용된 Nurses and Nursing(1973), Report of the I. C. N. (Mexico)

10) Spalding d Notter(1965), Professional Nursing(Philadelphia: Lippincott), PP. 49~57.

Spalding(1965)은¹⁰ 간호 전문직은 일정한 원칙을 적용하여 봉사의 이념을 행동화하는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라 했다. 또한 간호원은 환자를 능숙하게 둘봐야 하고 의사 또는 다른 간호요원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일하며 환자의 간호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고 간호란 전인적 간호를 말하며 환자의 육체, 정신 또는 정서 전체를 들보는데 있다고 했다. 또한 Mcmanus(1954)는 전문직이란 전문화된 연구와 훈련을 기초로 하는 직업이고 윤리적 요소와 능숙한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직업이라고 했다.¹¹ 그러므로 간호교육 기관은 간호의 지식과 기술을 전승하는 한편 사회요구에 부합되는 간호의 이론, 규범 및 경향을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키는 창의력을 행사하여 간호에 대한 새로운 이념이나 철학의 본산지가 되게 하여야 하며 인간을 위해 또한 인간과 더불어 봉사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문직업에 대한 공지를 각자가 확고히 해야 될 것이다.¹²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군을 보면 29세 이하의 교수가 38.0%로 그의 연령군(30~34세 : 30.7%, 35~39세 : 22.9%, 40~44세 : 6.4%, 45~50세 : 2.0%, 25세 이하 1.0%)에 비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일반 대학의 경우 29세 이하의 교수(14.0%)가 30~39세(50.2%), 혹은 40세 이상인 교수(28.9%)에 비해 적은 것과는 상반되는 것¹³으로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 교수의 연령이 아직 낮고 중진교수가 적은데 기인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와 간호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조사 대상의 반응을 보면 「병원의 인력부족으로 간호업무는 과중하다」(88.2%), 「간호원은 계속적으로 긴장된 환경에서 근무한다」(73.9%)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고 반대로 「수입이 많은 직업이다」(60.1%) 「사회에서 우대받는 직업이다」(55.7%)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

(1975)¹⁴ 이 (1969)¹⁵의 간호원의 직업의 만족도 조사에 있어 간호원의 직업에 대한 불만 이유가 「업무량 과다」와 「보수가 적다」에 기인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였다. 그러나 Simmon(1964)의 연구에서 미국 간호원이 자기 봉급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¹⁶

한편 간호원의 처우문제에 대한것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면 간호원은 전문직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제도적, 행정적 여러가지 불합리한 조건으로 충분한 보수가 지급 되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의 경우 간호원의 법적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반면에 환자는 급격히 늘어나 간호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불합리한 간호원의 처우문제에 대한 것은 물론 임상, 보건분야에만 한정하지 말고 산업장, 학교등 고루 간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의 수급 체계를 재 정립해야 할 것이다.¹⁷ 특히 병원에서의 적절한 인력의 확보와 환경정비, 시설 확충, 물품공급 및 보수문제는 병원의 기능인 환자치료, 건강교육 및 봉사를 위해 필요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책이 요청되며 특히 간호원의 처우개선, 인력수급, 사회적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¹⁸

정(1973)¹⁹은 가치체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활이 전문적인 집단의 움직임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40.2%의 교수가 「간호원 단체나 조직은 다른 전문직보다 약하다」라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수의 교수가 다른 전문직 단체에 못지않은 강력한 자치단체로써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간호 전문직 단체를 통한 그릇된 사회인식의 시정과 아울러 전문직으로서의 역활의 기준설정, 직업윤리 준수 및 간호원의 처우 및 복지증진등 자치통제 역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겠다.²⁰

11) 전산초, "전문직업과 간호연구,"[대한간호],(1970) 제 9권, 제 3호, P. 13. 연구

12) 김광주, "간호교육 및 업무의 실제와 문제점,"[대한간호],(1970) 제14권, 제 5호, P. 52.

13) 「문교 통계 연보」, 1975, 문교부, P. 500

14) 서문자, 우옥자, "임상 간호원에 대한 직업만족도 및 이직에 대한 반응,"[최신의학],(1972) 제15권, 제 3호, P. 100.

15) 이학성, 홍경자, "보건 간호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취업동기에 관한 조사,"[중앙의학],(1969) 제18권, 제 5호, PP. 98~99.

16) Simmon d Henderson, "A Survey and Assessment," Nursing Reserach,(1964)

17) 흥신영의, 「한국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일 연구」, 서울:문교부,(1969) P. 34.

18) Kenneth D. Benne and Warren Bennis(1959), "The Role of the Professional Nurse," A. J. N., 59 : 2, PP. 196 ~ 198.

19) 정희설, "새 시대를 향한 간호,"[대한간호],(1973) 제12권, 제 2호, P. 28.

20) Catherine M. Hall (1973). "Character'sitter of Profession" Report of the I. C. N.

오늘날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호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간호원으로부터 계속적인 도움을 잘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²¹⁾ 강(1972)²²⁾의 연구에서도 간호원이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의무적으로 한다」(48.2%)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 본 연구에서도 「간호원은 환자간호에 무관심하다」에 대해 비교적 많은 수의 (49.2%) 교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간호개념이 개인 또는 가족, 집단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환자간호, 재활 또는 회복을 위해 책임있고 실력있는 전문적 봉사를 제공하는 데 비추어 볼 때 크게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점 인본주의 간호 가치관의 확립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에 혼신적으로 임하므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23) 24)}

더우기 간호직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간호원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 중요시 되며 간호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즉 인류의 건강증진에 공헌하는 직업임으로 간호원 자자가 자신과 궁리를 갖고 업무에 임하여 일반인의 간호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나아가 간호이념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간호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발전하고 실제 사황에 적용하는 계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 있어 「간호원은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적지 않은 수의 전임강사 (40.8%)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므로 간호원의 연구의욕 내지 노력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간호원의 연구의 범위는 인간과 관계 있는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매우 넓고 다양한데도 아직 많은 수의 간호원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연구방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과중한 업무에 놀려 필요성을 인식하나 과감히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간호직은 다른 전문직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륜만 쌓아서 기능, 기술에만 속

달해져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며 이론적 배경과 기술을 바탕으로 계획 연구, 개발함으로 비로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 간호학 교수가 본 간호직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간호대학 교수 (59.9%), 간호전문학교 교수 (58.3%), 간호학교 교수 (51.4%) 등 재직학교별 큰 차이없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고 특히 「점차적으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다」(81.1%),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간호에 요구되는 교육수준이나 자격이 높아질 것이다」(72.1%)의 항목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젊은층의 교수 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P = 0.0288$). 이 결과는 신(1973)의²⁵⁾ 연구에서 간호직의 장래에 대해 「매우가 좋아질 것이다」(76.3%), 「간호원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적 인정이 증진 될 것이다」(98.1%)라고 한 결과와 같았다.

간호학 교수가 교육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는 「이론강화와 임상실습지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88.1%)에 대한 것으로 거의 다수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습교육이 행하여지지 못하는데 기인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교육 기관에서는 우수한 교수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습지를 확보함으로 이론과 실습이 균형을 이루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창의적인 자세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힘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²⁶⁾

간호학은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과학이며 예술(Science d'Art)이기 때문에 인간의 요구와 행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개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서 간호원의 역할이 환자간호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건강유지, 증진 및 회복등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전인적 간호원리에 입각하여 행해지므로 학생에게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어짐으로 교수들이 직업에 대해 더욱 만족을 하고 교직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할

21) 이영복, “전문적 간호원의 자세”『대한간호』,(1970) 제 9권, 제 4호, P. 37.

22) 강경자, “간호원직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대한간호』,(1972)· 제11권, 제 2호, PP. 59~71.

23) 하영수, 「간호학 원론」(서울:이대출판사), (1977) PP. 32~50.

24) Definition of nurs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 21, No. 3 ~ 4, May/August 1974, P. 103.

25) 신봉혜, “간호원의 의식구조에 관한 일 고찰,”『대한간호』,(1973) 제12권, 제 1호, P. 87.

26) 한윤복, “새 시대를 향한 간호교육 이론,”『대한간호』,(1973) 제12권, 제 4호, P. 46.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에 대한 만족여부는 곧 간호의 질에 미칠 수 있고 또 학생에게 크게 영향 되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본 교수들이 교직생활의 만족여부는 대부분의 교수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업무조전, 보수, 직위, 가정의 안정감, 교수 임명 승진에 관한 규정등 외적인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교육하는 즐거움, 능력발휘, 학과에 자신감, 교수로써의 자질, 자율성, 안정감, 가족중 간호원이 되길 원한다면 권하겠다. 교직생활의 만족등 내적인 것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Burke(1976)의²⁷⁾ 연구결과와 비슷한 것이었으며 Blau(1973)의²⁸⁾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외적인 보상(Reward)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지만 일반 교수의 채용시에는 내적인 보상에 의해 크게 영향되어지며 교수는 학생을 교육하는데서 충분히 보상받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동소이하였다.

한편 「가족중 간호원이 되길 원한다면 권하겠다」의 항목에서는 간호대학 교수(69.0%) 전문간호학교 교수(58.5%), 간호학교 교수(63.7%) 등 재직학교별 차이 없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V. 결 론

1977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간호학 교수 205명을 대상으로 간호 전문직 7가지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25~29세가 37.0%로 가장 많았으며 한편 기혼자가 대다수(81.0%)로 미혼자(18.0%)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들 대부분의 교수는 종교(75.1%)를 갖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전임강사가 반수이상으로(63.4%) 가장 많았으며 또한 간호전문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간호대학(28.3%), 간호대학교(5.4%)에 비해 많

았다(66.3%).

조사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학원을 졸업한 교수가 46.8%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교육경력이 5~9년 임상경력 1~4년인 교수가 가장 많았다.

2. 조사 대상자의 7가지 간호 전문직에 대한 태도는 대표값 2.424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3. 조사 대상자중 간호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수입이 많은 직업이다」「사회에서 우대받는 직업이다」 등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긍정적인데 비해 간호전문학교, 간호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P < 0.05$).

4. 조사 대상자중 10~19년의 임상경력이 있는 교수가 간호원의 근무태도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또 재직학교별 차이없이 부교수가 교수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P < 0.05$). 한편 임상경험이 많은 교수일수록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P < 0.05$) 또 한 재직 학교별 차이없이 다수의 교수가 간호직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젊은층의 교수일수록 긍정적이었다($P = 0.0288$).

5. 조사 대상자중 간호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간호교육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반하여 간호전문학교 교수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10~19년의 임상경험이 있는 교수가 임상경험이 없는 교수보다 긍정적이었다($P < 0.05$).

6. 조사 대상자의 교직생활에 대한 내적만족 여부에 관해서는 재직학교별 차이없이 긍정적이었으나 외적만족 여부에 관해서는 부교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외 교수는 중립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P < 0.05$).

끝으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바쁘신 중에도 세심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하영수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연세의대 이동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7) Burke, D. Grandjean (1976), "Professional autonomy and the Work Satisfaction of Nursing educators," *Nursing Research*, P. 216.

28) Blau, P. M. (1973), *The Organization of Academic Work*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참 고 문 헌

1. 강경자(1972), *대한간호*, 제11권, 제2호, PP. 59~11. 71
2. 고영복(1977), *현대 사회심리학*, 서울:법문사
3. 김광주(1970), *대한간호*, 제14권, 제5호, P. 52.
4. 김윤희(1973), *간호학회지*, 제3권, 제3호, P. 31.
5. 문교통계연보, 1975, 문교부, P. 500.
6. 서문자, 우옥자, *최신의학*, 제15권, 제3호, P. 100.
7. 신봉혜, (1973), *대한간호*, 제12권, 제1호, P. 87.
8. 이성학, 홍경자(1970), *중앙의학*, 제18권, 제5호, PP. 98~99
9. 이영복(1970), *대한간호*, 제9권, 제4호, P. 37.
10. ———(1976), “전문직과 윤리” 이화창립90주년 학술심포지움 보고서, P. 18.
11. 전산초(1970), *대한간호*, 제9권, 제3호, P. 13.
12. 최정훈(1969), *인문과학*, 제22집, P. 60.
13. ———(1971), *지각 심리학*, 서울:울유문화사
14. 하영수(1976), *대한간호*, 제15권, 제2호, P. 37.
15. ———(1977), *간호학 원론*, 서울:이대출판사
16. 한윤복(1973), *대한간호*, 제12권, 제4호, P. 46.
17. 한정석(1973), *간호학회지*, 제3권, 제2호, P. 122.
18. 홍신영외(1969), *한국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일 연구*, 서울:문교부, P. 34.
19. Blau, P. M. (1973), *The organization of academic work*, New York:
20. Burke, D. Grandjean(1976), *Nurs Res.*, 25, No. 3, P. 216.
21. Definition of Nurse :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21, No. 3~4, P. 103.
22. Kenneth, D. Benne and Varren Bennis(1959), *A. J. N.* 59, No. 2 PP. 196~198.
23. Marlene, Glover, Mayers(1972), *Systematic Approach to the Nursing Care plan*,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24. McCloskey, Joanne(1974), *Nurs Res.*, 23 : 239~247.
25. Raymond, L. Faicione(1976), *Nurs Res.*, 25, No. 5.
26. Simmon(1964), *Nurs Res.*
27. Spalding and Notter(1965), *Professional Nursing*. Philadelphia : Lippincott.
28. Virginia Henderson(1964), *A. J. N.* 64, No. 8, P. 62.
29. Catherine M. Holl (1873),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 Report of the I. C. N.*

* Abstract *

**Attitudes of Nursing Educators Toward
Professional Nursing**

Lee, Nam Hi*

This study of nurse educator's attitudes which found aspects of professional nursing was carried out from September 10 to 30, 1977. Subjects were 205 respondents from a total population of 314 nurse educators from the level of instructors to professors in all the diploma (post high school 3 year), professional junior college (3 year level) and university (4 year) nursing schools in Korea.

Specific objectives were to determine their attitudes about the 1. social position of nursing as a profession, 2. nurses attitudes towards their work, 3.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nursing, 4. the future of nursing, 5. nursing educational problems, 6. their own educational position's intrinsic job satisfaction and 7. their salary and benefits.

The instrument used was a questionnaire developed from consultations with nursing educators and sociologists, and based on earlier works by Burke (1976), Muson (1974) and Hong 1969. Data were analysis by computer using one-way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dings included the following;

1. Responses were positive toward all seven aspects of professional nursing.
2. Compared to diploma nursing school staff whose responses were positive, professional and university school faculty response toward the social position of nursing were neutral.
3. Faculty with clinical experience of 10 to 19 years were most positive in their responses about nurses' attitudes towards their work. In all three types of schools, in comparison to professors, associate professors' responses were more positive about nurses' attitudes toward their work. Faculty with longer clinical experience expressed high agreement with statements about factors which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nursing. Without any differences between school, all faculty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future of nursing, the younger the staff member, the more positive were the responses.
4. Faculty in diploma schools and those with 10 to 19 years clinical experience expressed high agreement with statement about nursing educational problems while responses from faculty from professional schools and those without clinical experience were neutral.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Director ; Dr. Ha, Young Soo

5. Responses showed general satisfaction with intrinsic aspects of teaching in all school. Associate professors were positive about satisfaction with salary and other benefits but full professors' responses were neutral.